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43)(3/18/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0 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가 회복될 것임을 확신함, 5-6 절

약 1:17 -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요 15:9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눅 8:15 -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5. 내가 어떤 것을 네게 주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나의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네게서 다시 거두어 갈지라도, 나는 너의 것을 빼앗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약 1:17). 내가 네게 아무리 큰 역경이나 고난을 보낸다고 하여도, 화를 내거나 마음에 슬퍼하지 말라. 나는 신속하게 너를 들어올려서,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네게 이렇게 할 때, 나는 여전히 의롭고, 크게 찬송을 받아 마땅하다.

6. 내가 네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네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참된 시각에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너는 역경을 만났다고 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때에 너는 내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너로 하여금 괴로운 일들을 혹독하게 겪게 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로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였다(요 15:9). 내가 그들을 보낸 것은 세상의 덧없는 기쁨들을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싸우게 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멸시받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유를 부리며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게 하기 위한 것이고, 편히 쉬며 안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내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눅 8:15). 내 아들이야, 이 말을 명심하여라.

말씀과 해설:

우리가 지난 두 차례의 묵상에서 살펴본 영성생활의 네 가지 장애물들(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일에 대한 염려, 염려의 마음에 파고드는 시험들,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장애물은 외부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면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잘못된 장애물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내 안에 세워야 하는 것들은 잘 세워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우기를 원하신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의 동행 가운데 영적 회복과 승리를 얻기 원하는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1)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시 145:13 -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골 2:10 -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성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2) 참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악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시 103:8 -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 116:5 -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요일 4:16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3) 너무나 사랑 많으시고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시 103:5 -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 7:11 -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4)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당하는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꺾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돕지 않으신다거나, 혹은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시련에도 뜻이 있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시련을 통해서도 복을 주심을 믿는다. 그래서 바울은 롬 8:28 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고난과 시련 성공과 형통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만 보지 말고 나중도 보고,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과정도 보지만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향한 신뢰이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간직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길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의 끝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넘어섬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영적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들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고,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